

대림제 3주일 (자선주일)

제1독서 : 이사 61, 1-2a, 10-11

제2독서 : 1데살 5, 16-24

복 음 : 요한 1, 6-8, 19-28

숲 정 이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목이오” (요한 1, 27).

강론

“‘노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루가(10, 37)

주목성 신부/군중(노도 성당)

신자 가족이라야 27세대 108명뿐이기에 여기 노도에서 맞는 대림시기는 여느 해와는 다른점이 있다. 판공성사로 코피를 쏟을 만큼 분주하지 않아 모처럼 대림다운 묵상과 은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선택한 묵상 주제는 서품 첫째 친구 수녀님이 전해준 쪽지 내용이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않았음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사람들이 사는 환경과 여건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건 거기엔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내 사랑의 대상들이며 하느님의 모상들이라는 점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속에서 만이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 삶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며 사는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라 생각함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총을 스스로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 봉사, 자선, 나눔 이 모든 것은 내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기에 소중함이 있을터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향한 끊임없는 결단과 투신의 삶이 요청되는 것이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믿는 이는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해방과 자유를 주는 자, 평화를 건설하는 자,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자라 말하고 있다. 곧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음으로 변한 세상이 어떤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방치한 삶의 결과가 어떤가.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게 되고, 굶어 죽어가고, 추위에 떨고, 삶을 유린당하고, 날치기가 판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함이 아닌 “내 탓이다.”라고 절규하며 가슴을 칠 일이다.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은 또다시 억눌린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다. 모든 것을 진정 사랑하지 않았음을 겸손되이 고백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그분의 삶에 동참하자. 그것이 진정 이 시대의 살아있는 신앙고백이겠기 때문이다. 이제 산을 내려가 여기 노도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양구의 하늘에 눈이 내린다.

소리

“쌀”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잉여 농산물은 한·미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상징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농촌과 6백만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미국이 불과 2천여 가구에 지나지 않는 캘리포니아 농민들을 위해 해방 후 반세기에 가깝도록 쌀시장을 개방하도록 온갖 방법과 압력을 가해왔다. 특히 미국은 우리네 입맛에 맞춘 단립종(短粒種)을 생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 그 뜻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뭘 했는가.

같은 입장의 일본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10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해왔다. 지방마다 기름이 잘잘 흐르는 맛좋은 ‘특산미’를 개발했고, ‘검정쌀’ ‘분홍쌀’을 생산 시작 효과까지 높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자국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7년을 허송하다가 벼랑 끝에 몰려서야 굼뜨게 움직인 것이 협상다운 협상 한번 벌여보지 못한 채 백기를 들고 말았다.

“고립될 것이 두려워 불리한 협상을 대세에 밀려 받아들이는 것은 거짓 용기”라며 미국과의 마지막 협상에서 승리한 프랑스 발라뒤르 총리의 용기가 부럽다.

전국민이 지혜를 모아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이때 벌써부터 캘리포니아산 쌀을 먹으면서 “값싸고 맛도 좋다.”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다. 한심한 일이다. □

숲정 이 산책



제10회 자선주일 담화문(요약문)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시니다”(요한 1, 26).

대림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찾는 일이요, 바로 보는 일입니다. 현대는 너무나 무감각한 세계입니다. 마치 밤바다에 배 두 척이 서로 비켜 가듯 사람들은 서로 비켜 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된 자선은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을 찾아 바로 보는데서 시작됩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이사 61, 1).

자선의 첫째 항목은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권력”과 “힘”에 부당하게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자선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타인을 자기 힘으로 억누르고자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을, 자기의 올바름과 선을 가지고도 타인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경험과 자기 삶의 방식을 강요함으로써 타인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선은 온갖 종류의 힘들, 권력, 재산, 지식 더 나아가서 선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 등 인간적인 모든 힘들을 포기하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데서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을 포기하는 “힘 없는 자의 힘”이 곧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힘이요, 이 힘을 드러내는 것이 자선의 삶입니다.”

“찢긴 마음을 싸매 주고”

삶의 여정에서 서로 찢고 찢긴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또한 자선활동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한번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상처 받은 마음들은 가족이나 친구, 넓게는 사회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해 찢겨진 마음이요, 사랑할 능력을 상실하여 자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삶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을 상실한 상태요, 근원적으로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동진 인간 갈등에서 찢겨진 마음들입니다. 자선은 찢긴 마음을 싸매주는 삶입니다. 비록 나 자신도 연약한 인간으로 찢겨진 마음이지만 이 상처난 마음을 감추고 다른 이의 상처를 돌보는 마음과 행동이 곧 자선활동입니다.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리라”

전쟁이 빚어낸 수많은 난민들과 이산 가족들, 경제적

상황 때문에 외국에 취업한 노동자들, 버림받은 농어민과 도시 빈민들 모두가 인간 생존전쟁으로 사로잡힌 포로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물론 타인들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는 일이 곧 자선활동입니다. 재물에 포로가 된 사람은 생존에 위협 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해방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으로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자유로워지며, 자기 이념이나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해방되고, 아집과 집착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세상, 더 높고 넓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모든 일이 자선활동입니다.

“옥에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 보아주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처한 인간 조건과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 “옥에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자유는 영원한 진리에 예속함으로써 얻게 되고, 하느님의 진리와 선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은총의 자유입니다. 자선활동은 은총의 자유에 예속됨으로써 자신의 자유와 더불어 타인의 자유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선은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 농어민, 도시 빈민, 장애자 등이 추상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 사랑을 원합니까. 사랑이신 하느님도 우리 구원을 위해 구체적인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구원, 회복, 해방은 2천년 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 추상적인 우리 눈은 아직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993년 12월12일 대림제 3주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 석 희 주교

동신 인삼사

인삼 25호, 꿀 도매

송은자(실비아)

진안 전북인삼조합 내 수삼센터

☎ (0655)33-4533(사)

(0655)32-9188(자)

활인기공원

중국 정통의 기제조 건강요법 및 신기공
요법(전문적인암예방·치료제조공법)지도

채규호(시몬)

유선자(아가다)

전주 금암동 금암APT 앞

☎ (0652) 252-6714

차향주 미용실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축! 확장 이전

한성 건축사 사무소

건축설계, 감리, 건축상담

한성수(디오니시오)

전북은행 농송지점 뒤 세진빌딩 401호

☎ 87-9585~6 FAX 83-9166

5분교리 39

“그리스도인의 죽음”

지금까지 가톨릭 교리의 믿을 교리(교의), 지킬 계명(윤리), 성충을 얻는 방법(성사)을 다루었다. 이번부터는 지상 삶의 끝과 하느님의 심판, 영원한 삶 등 인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죽은 이를 기억하고 따라서 죽음을 더욱 자주 묵상하게 된다. 지난 봄 연두색으로 새로 태어난 나뭇잎들이 벌써 낙엽으로 뒹굴고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생명있는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이 생성 소멸을 거듭한다. 인간의 죽음도 자연의 순리와 이치에 따라 맞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이 그렇게 생소하고 두렵지만은 않은 것으로 다소 초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자연적 결과로 맞이하는 죽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희망까지도 가질 수 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삶으로 옮겨감이오나...” “죽음아, 네 승리는 어디갔느냐?” 많이 들어보던 기도 내용이에요, 성서 말씀이지 않느냐? 그렇다. 죽음을 모르셔야 할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을 피해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사심으로써 죽음을 이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세례성사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기 시작한다. 따스카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고 있으며 매일 죽는 만큼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해주신다. 이런 매일의 죽음은 마지막 결정적 죽음을 거쳐서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아름답던 꽃이 지면서 새 생명의 씨앗을 품듯이 우리 지상 생명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서 지는 것이다. 또 한가지 진리는 우리는 매일 밤 죽음과 아주 비슷한 잠 속으로 빠져드는데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의 마지막 죽음도 이렇게 잠들 듯이 평온하게, 졸리듯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자.

*참고 자료: 처퍼의 죽음, 칸 교수의 비밀(VHS 56분) 인간의 죽음(책)

교구 소식

1. 성서 특강 : 12월13일(월) 오전9시30분-오후4시 전동 성당 교육관, 계시헌장 강의의 빛과 견제, 강사-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 준비물-필기구, 중식.
2. 천호 피정 안내 : 12월14일(화) 주제-성사와 삶, 강사-양경배 신부.
3. 빛두레 신앙인 학교 : 12월13일(월) 오후7시, 강사-송남수(농민회 회장).
4.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12월19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5. 예비 신학생 모임 : 12월12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6. 교구 신학생 학년별 모임 : 12월16일-22일 상지원.
7. 수녀들을 위한 상설고백소 안내 : 매일 둘째 화요일 오후2시-4시 윤정이 성당, 넷째 월요일 오후2시-4시 교구청 내 성당.
8. 가톨릭 간호사회 제15차 CICIAMS 세계대회 신청 : 94년 8월23일-9월2일 벨기에, 마감-12월15일까지, 문의 (0652)70-3115.
9. 혼인강좌 : 12월19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문의 85-5098.
10. 상아탑 소년 꾸리아 : 12월12일(일) 오후2시 오룡동 성당.
11.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 12월20일로 연기됩니다(특강을 위하여).
12. FAX 번호 안내 : 가톨릭 전주 교구청 홍보국 (0652)83-9365.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 12월19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9262.
 성모영보수녀회 : 12월19일 오후2시 상지원 수녀원 (0653)862-0880.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 12월19일 오전9시30분 서울 본원 (02)984-4801.
 동정성모회 :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 (0652)222-5269.

요심이 (1059) 김병오



성전건립 기금 마련 성체표 양말 판매

유명메이커 제품 1각 5,000원 연락 즉시 배달 ☎(0653)861-7258, 861-3275~6 용안 천주교회

가톨릭신문 전주지사

구독신청 및 광고문의 양 소민(엘리사벳) 가톨릭센터 3층 ☎·FAX 232-0268

우편통신에 의한 신학공부(2년제)

- 대상 : 전신자(연령 제한 없음)
- 과목 : 성서, 신학 전반, 영성
- 접수기간 : 94.1.4-1.26
- 원서청구시 소액환 3,700원 동봉
- ☎745/8339 서울 종로구 회화동 90-12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문구, X-마스추리 전주 도매센터 남문노트사

원수관(야고보) 심경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0652) 83-3352 FAX 83-7721

자연 동물병원

대동물, 소동물, 각종 질병상담 및 수술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애견용품 이한경(요한) 인후동 안골 사거리 ☎231-9529(주) 84-6058(야) 호출기 012-678-9529

자동차의 모든것 월드가 인테리어

이충석(살레시오) 김미자(실비아) 우아동 신역로터리 해금장 옆 ☎72-5173, 73-053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2차 헌금 있음.
1. 반희장 경질: 중노21반 강향이(글라리아) → 정규자(요안나)
 2. 영세자 집중 교리: 14~17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3. 영세식: 19일 전 9시(영세자, 대부·모예서는 8시3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 판공 일정: 20일-남노, 중노1구역, 21일-중노2,3구역, 22일-중노4, 인후1구역, 23일-인후2, 기타구역 후 3시~6시 미사 전후, 5. 성탄 성가 연습: 13일부터 저녁미사 후, 6. 사랑의 성금: 15만원, 누계-25만원, 7. 모임: ①부녀회(14일 어머니미사 후) ②형제회(18일 후 2시), 8. 교무금 완납과 내년 교무금 신입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9. 금주 청소: 중노9, 10반, 차주 청소: 중노11, 12반.
- 지난주 봉헌금: 953,230원 □ 교무금: 4,242,4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 길 평

1. 영세식: 19일 공식미사.
 2. 집중 교리: 14일 오후 7시30~18일.
 3. 성탄 복권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판공 성사 못보신 분은 매미사 전,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5. 회합: ①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 2시) ③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④해설자 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⑤부녀회(16일 오전 10시) ⑥성우회(19일 공식미사 후)
 6. 불우이웃돕기: 계 450,000원
 7. 대건회 임원개편: 회장(이준철, 니콜라오) 총무(김현덕, 다미아노) □ 지난주 봉헌금: 557,800원 □ 교무금: 1,898,390원
- 금주 전래: 해설-형인순, 독서-이준철 부부
봉헌-조중업 가족
차주 전래: 해설-유두서, 독서-유달수 부부
봉헌-이병현 가족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6-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 2차 헌금.
1. 모임: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자모회-다음 주일 ③장년회-18일(토) 2. 판공 및 구역 미사: 14일(화)-신홍, 백암, 15일(수)-하신, 색강, 16일(목)-상신, 원신, 17일(금)-수월, 마치, 3. 영세식: 25일 10시 집중 교리-20일~24일, 매일 10시30분, 통신 교리 이수자는 집중 교리에 필히 참석하세요. 4. 성탄절 행사: 24일(금) ①초, 중, 고, 성 발표회-저녁 7시 ②구유 축성에 걸-저녁 10시30분 ③잔야미사-저녁 11시, 5. LM 교육 및 연중 친목회: 19일(주일) 성당, 점심 제공, 6. 레지오 마리에 가입하여 기도과 진공에 힘써시다. 7. 성탄 제대꽃 봉헌바랍니다. 8. 차주 전래: 해설-김영신, 독서①박귀철 ②송정자, 봉헌-황옥섭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66,200원 □ 교무금: 473,000원

*** 서화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범 부

- ◎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자선의 날 2차 헌금 있음.
1. 재속 프란치스코 3회: 12월12일(오늘) 오후 2시.
 2. 성심회: 12월14일(화) 오전 10시30분.
 3. 가정 방문: 12월14일(화) 26반, 8반A반, B반.
 4. 예비자 집중교리: 12월14일(화)~12월17일(금) 오후 7시부터.
 5. 영세식: 12월18일(토) 저녁미사 ※ 영세자와 대부모는 30분 전에 성당 입장.
 6. 참회 예정: 12월15일(수) 오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946,700원 □ 교무금: 2,503,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2차 헌금 있음.
1. 오늘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
 2. 오늘 연중 친목회: 오후 2시.
 3. 다음주 영세식: 12월19일 오전 9시30분.
 4. 영세자 집중교리: 12월14일(화)~17일(금) 저녁 8시.
 5. 성탄맞이 대청소: 12월15일(수) 오전 10시.
 6. 성탄 판공 12월16일: 1,2,3구역(오후 3-5시, 저녁8시) 17일: 4,5구역(어머니미사 후, 저녁 7시) 18일: 초, 중, 고, 직강(오후 3시, 저녁 7시)
 7. 성탄 제대꽃 특별 봉헌 받습니다.
 8. 본당 M.E가족 모임: 12월15일(수) 오후 8시, 금호APT 7동103
 9. 청소 봉사: 1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729,200원 □ 교무금: 1,114,000원

*** 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현

- ◎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 축하! 영명(김 신자)가 오늘 유치원 수녀님 12월14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금주: ①자선주일(2차헌금) ②평형 전기 총회(전 10시, 가톨릭 센터) ③자모회(전 10시) ④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⑤사목회 총회(후 8시, 강당)-분과위원 전원 참석바람. 2. 성서교실 특강: 13일(월) 오전 10시, 본당. 3. 사라회, 성모성심회 피조: 14일(화) 전호 피조의 집. 4. 추계 판공성사: 14일-17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30분-5시. 5. 빼에따회: 15일(수) 오전 11시. 6. 구역반장 회의: 16일(목) 오전 11시. 7. 레지오 마리에 연차 총 친목회: 18일(토) 오후 8시. 8. 차주: ①혼인 강좌(전 9시30분, 센터) ②바비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③청년 연합회(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1,808,82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삼 근

1. 본당 판공성사 일정: 13일-14,1,2, 삼성강당, 기타구역, 14일-3,4,5,16구역, 15일-17,18,19구역, 16일-6,7,8,9구역, 17일-10,11,12,13구역, 시간: 전 10시~12시, 후 3시~6시, 저녁 7시~10시. 판공성사표는 당일 사무실에서.
 2. 세례 대상자 면접: 13일 후 3시~6시 저녁 7시 사제관.
 3. 교도소 판공성사: 15일 후 1시30분.
 4. 회의: 성채회-오늘, 청년 성가대-저녁미사 후, 성모회-15일, 청년회-다음 주일 저녁미사 후, 5. LM 연세 미사: 차례 참고.
 6. 성모회 임원 개편: 회장-문정숙, 부회장-김복희, 서기-은희영, 회계-김생규, 7. 가정 미사: 18일 11시 14-2 문테레사.
 8. 혼인 강좌: 19일 오전 10시, 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 지난주 봉헌금: 1,171,990원 □ 교무금: 3,638,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사목회장 한 병 갑

- ◎ 대림 4주간 특강: 유화하는 공동체
특강해 주신 유영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1. 자선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 성모회: 공식미사 후.
 3. 성탄 판공 일정: 14일(화) 15일(수) 17일(금) 19일(일) 21일(화) 22일(수)(안내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4. 울뜨레아: 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5. 성탄 복권 경품을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청소: 금하, 차주 청소-평화.
- 금주 전래: 박순옥, 한병갑, 독서·봉헌-강금자, 노영석, 차주 전래: 김희숙, 손금구, 독서·봉헌-이영일, 황윤주
- 지난주 봉헌금: 600,300원 □ 교무금: 2,767,500원

*** 효지동** 본당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삼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실

- ◎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자선주일 2차 헌금)
1. 울뜨레아: 12월(일) 저녁미사 후(교육관)
 2. 초등부 교사 정기총회: 12월13일(일)
 3. 영세식: 12월19일(일) 오후 3시.
집중교리: 12월14일(화)~18일(토) 매일 오후 7시30분 시작
 4. 지모회: 12월21일(화) 오전 11시.
* 판공성사: 12월7일(화)~12월19일(일) 매 미사 전후에 보십시오.
- 미사 안내: 금주-셋벌, 순교자의 모후
차주-성 마리아, 애덕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475,010원 □ 교무금: 8,814,5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21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 의 도

1. 모임 안내: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기우회-공식미사 후 ③번체사회-13일(일) 오전 10시 ④자모회-14일(화) 오전 10시 ⑤반석회-18일(토) 저녁 7시.
 2. 성탄 영세 예비자 면담: 14일(화) 저녁 7시30분.
 3. 유아세례 신청하실 분은 19일까지 접수바람.
 4. 판공성사: 17일(금) 저녁 7시.
 5. 예비자 종합교리: 13일(월) 저녁 7시30분~21일(화) 금주 전래: 해설-조신옥, 독서①희명수 ②남미경
봉헌 안내-방세현 부부
차주 전래: 해설-이건태, 독서①방세현 ②박방이
봉헌 안내-전형철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438,100원 □ 교무금: 8,347,000원